

두일전자통신(주)

- 21세기 최고의 유무선 통신장비 업체로 도약 -

『차세대 통신기술 선도』 『전문 통신기기 업체로의 도약』 『해외 시장 개척』 등을 경영목표로 선정하고 21세기 최고의 유무선 통신장비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연구, 노력하는 두일전자통신은 현 서울이동통신의 이봉훈 회장이 지난 79년 두일화학공업주식회사로 설립, 서울이동통신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다. 창업자인 이봉훈 회장은 79년도 정부에서 아날로그 전자교환기 도입시기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교환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의 국산화 필요성을 느끼고 국내최초로 아날로그 전자교환기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부품 국산화에 성공, 이를 생산하면서 통신사업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처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로 출발한 두일화학공업은 79년 경기도 이천에 1만여평 규모의 공장을 마련하고 83년에는 상업은행 지정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성장을 계속하던 중 84년 회사의 상호를 두일산업주식회사로 변경하고 한국통신으로부터 SLOMS(가입자 선로 집중 운용 보전시스템)기술전수 업체



- 대표 : 송삼재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610-1
- TEL : 0336)636-5791
- FAX : 0336)636-1738
- 생산품목 : 전용회선 운용보전 시스템, 가입자 선로 다중화장치, 무선호출기, CT-2단말기, 광케플러, 선로다중화장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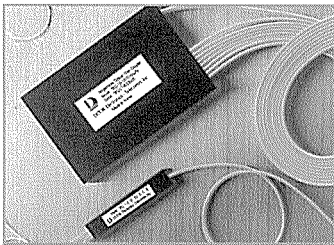
로 선정되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외에 본격적인 유선통신 장비 제조업체로 변모, 제2의 도약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통신에 사용되는 각종 유선통신용 전송운용장비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영업기반을 확보한 두일산업은 94년 관계사인 서울이동통신이 무선호출사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무선호출고객관리 시스템, 무선호출기 등을 공급하면서 97년 회사명을 두일전자통신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장외시장(KOSDAQ)에 등록, 유무선 전문통신업체로의 제3의 변신을 이루었다.

현재 두일전자통신은 유선통신 시스템의 끊임없는 투자 및 개발로 한국통신에 유선통신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통신과의 오랜 납품에서 축적된 통신기술이 무선통신 시스템과 무선통신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국내 2위의 무선호출사업권자인 서울이동통신이 관계사로 있어 무선통신 기술력 및 차세대 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무선통신 단말기 및 장비의 공급으로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상업은행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의 중점지원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그 간의 체신사업 및 정보통신분야 발전 공로로 두번의 체신부 및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두일전자통신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크게 다섯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진다. 유선시스템부문, 무선부문, 광부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부품, OEM 등이다. 유선시스템부품에는 SLMOS(가입자선로 집중운용보전 시스템), DELMOS(전용회선 집중운용보전 시스템), ELITE(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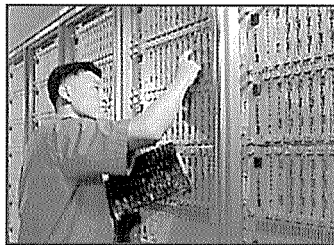
원 집중관리 시스템), TOMS (기지국 집중관리 시스템), CPMS (공중전화 관리시스템), SLM (가입자 선로 다중화 장치), P32-T(P32-T단국장치), HDSL(고속디지털 가입자 전송장치), 광분배반, 광단자함, 광케이블 접속함, 캡형단자함 등이 있고 주로 한국통신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개발 진행중인 유선시스템부품은 가입자의 고속 멀티미디어 통신의 요구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고속급(E1급/Nx64kbps)의 데이터 선로를 시험 및 관리할 수



▲ 통신시스템

기와 씨티캡 플러스(CT-2 단말기), 씨티홈캡(홈베이스 스테이션) 등이 있다. 또한 서울이동통신과 공동개발을 통한 제품 개발로 신세대 취향에 맞는 캐릭터 호출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ISO9002(호출기부문) 획득으로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율하반기 부터는 무선호출기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시장의 여건과 고객의 욕구에 맞는 모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광부품은 94년 ETRI와 도파로형 광커플러의 공동개발을 시



▲ 광통신

있는 차세대 DELMONS 및 ISDN가입자 등의 다양한 가입자를 수용가능토록 설계되는 차세대 SLMOS의 개발이 진행중이며, 고속 인터넷 멀티미디어 가입자를 위한 소형 광 다중화 장치의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수준 높은 연구원의 연구노력과 과감한 투자 등으로 유선시스템 분야의 선두기업으로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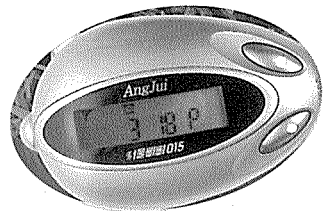
무선부문에는 비록 4년의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주력제품인 캡캐, 메이저, 양쥐, 꾸리, 아스트로-if란 이름의 무선호출

작으로 그 첫발을 내딛어 현재는 광커플러 외에 광점퍼코드, 광감쇠기, WDM(Wave Division Multiplex)커플러 등을 생산하고 있다. ETRI,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전자부품 종합연구소(KETI)등과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책기술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광통신용 핵심부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과 OEM은 국내 최고 기술력과 첨

단 생산라인을 통한 최고의 품질로 삼성, 현대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특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공정불량률 100PPM 달성 및 ISO9002을 획득한 상태다.

현 두일전자통신 대표이사(송삼재)는 '98년 4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전문경영인으로 회사설립 이래 지금까지 동거동락을 해온 경영인으로서, 사원부터 시작, 지금의 위치까지 오른 입지 전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회사의 경영에 밝은 안목을 지니고 있다. 조직은 무선, 시스템, 광, PL 사업부 등 4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매출목표를 300억으로 설정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이천에 생산공장을, 강남구 도곡동의 서울사무소 등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직원은 99년 1월 말 기준 134명이며 직원 평균연령은 30세로 연혁에 비해 상당히 젊은 회사다.